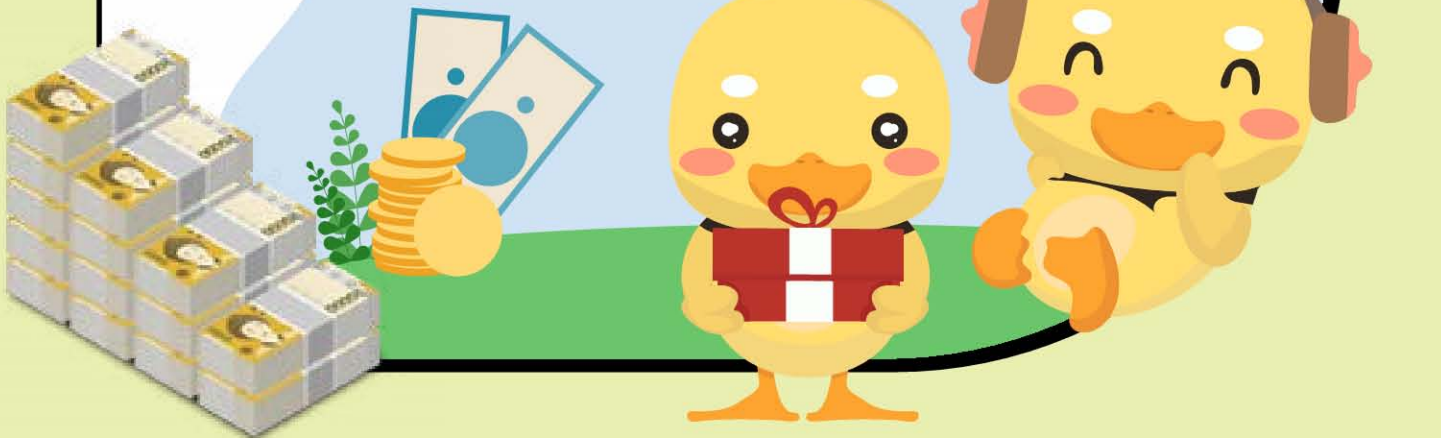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방역요령 등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방역 매뉴얼 V

차단방역(biosecurity)이란 동물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차단 방역은 가축 질병이 없는 건강한 동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신체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이면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 방역이다.

차단 방역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농장에서 행해지는 청소와 소독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반석가금연구소의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 방역 매뉴얼을 연재해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차단 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리사 청결 관리의 중요성

오리를 직접 수용하여 사육하는 오리사의 청결 상태는 오리군의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필수요소다. 오리사를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오리사 내부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 오리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들의 번식을 억제해 숫자를 줄이거나 사멸시킬 수 있다. 병원성 미생물들이 적은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이들 병원체가 가축의 체내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킬 기회가 감소하게 되므로 결국은 질병 예방이라는 차단 방벽의 궁극적인 목표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



오리사 청소

청소는 오리사 내부에 있는 사료 찌꺼기, 먼지, 거미줄, 각종 오물이나 분변 및 기타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되, 오리를 출하한 후 오리사가 비어 있을 때는 대청소를 해야 한다. 청소는 효과적인 세척 및 소독을 하기 위한 전(前) 단계다.



▲ 농장 입구는 물론 차가 들어오는 진입구간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모습



▲ 오리를 출하한 후 대청소가 필요하다. 입추 전 거미줄, 먼지 등을 세심히 청소해야 깨끗한 축사를 유지할 수 있다.

오리사 청소 요령

1

빈 오리사를 청소할 때에는 가장 먼저 오리사 내에서 사용하던 각종 기구나 장비 혹은 분리가 가능한 시설물들을 오리사 내에서 1차 세척을 마친 후 밖으로 이동시켜 세척과 소독을 시행하고 완전히 건조하게 해 창고에 보관한다.



2

이동할 수 없는 오리사 내 시설물이나 기구들은 그 자리에서 정리한 후 깨끗하게 청소한다.



3

오리 축사에 왕겨를 보충하는 경우 왕겨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동과 동을 이동할 때도 청소·소독을 한 후 사용한다.



사육유형별 적용 방안



축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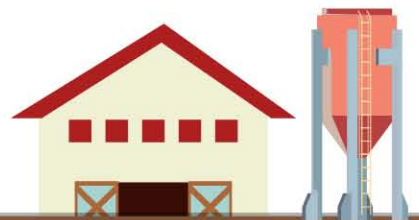
종 오리 파란으로 인한 오염 시 즉각 청소한다.

육용오리 출하하여 오리사가 비었을 때 대청소한다.



사육형태별

● 모든 사육형태별로 동일한 수준의 청소 및 소독 관리가 필요하다.



7

환축 발생 농장의 경우,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동력 분무기나 휴대용 분무기를 사용하여 매일 청소 및 소독을 한다.



6

오리사 내부뿐 아니라 농장에서 사용하는 시설(온풍기, 사료빈, 전기 배전함, 환, 전등, 분뇨 배출 컨베이어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해야 한다. 특히 사료빈 주변은 흘러진 사료 및 찌꺼기들을 수시로 청소하여 덧새 또는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5

깃털, 분변 및 먹다 남은 사료 등은 모두 제거한다.



4

천장이나 벽, 틈새, 환풍기 등의 먼지나 거미줄 등을 제거해야 한다.



사육형태별 · 환경별

-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연변 등으로 오리사가 불결해지기 쉽고 세균성 질병의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파리와 모기 등 위생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분변을 자주 제거하고 수시로 청소한다.

자료출처: 반석기금연구소

